

문학석사 학위논문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에 관한 연구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 소 연

문학석사 학위논문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
유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 소 연

박소연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 | |
|--------------------------------------|----|
| 초록 | ii |
| I. 서론 | 2 |
| II. 이론적 배경 | 6 |
| 2.1 Keenan & Comrie의 명사구 접근 위계 | 6 |
| 2.2 유생성 | 7 |
| 2.3 Ikegami(1991)의 언어 유형론 | 8 |
| III. 관계절 유형 및 영한 번역 유형 | 9 |
| 3.1 영어 관계절 유형 | 9 |
| 3.2 한국어 관계절 유형 | 11 |
| 3.2.1 영어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시 관계화 구문 | 12 |
| 3.2.2 영어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시 비관계화 구문 | 23 |
| IV. 결론 | 30 |
| 참고 문헌 | 32 |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Relative Clauses

So Yeon Par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ount for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patterns for English Relative clauses.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modification structures.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Korean does not allow the postmodifiers like relative clause in English. Hence I could expect that the English relative clauses will be translated into premodifiers or any other paratactic structures in Korean. I analyse the corresponding patterns of transla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Korean translated texts. I've chosen 120 English relative clauses from the English version of 'Alchemist' and 'Brida' by Coelho, P. and compared paratactic structures from the Korean version. English relative clauses which are relativized are not always relativized when translated into Korean. I was able to find English relative clauses translated into independent clauses, adverbial clauses, adverbs and nouns. Since

Koreans have difficulties translating English relative clauses into Korean, I expect this paper to give them a chance to translate relative clauses more properly.



1. 서론

영어 관계절은 명사 수식어를 명사구 안에 포함시키는 종속절(subordinate clauses)이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지시적 확인(referential identification)이라는 문법의 일부가 된다(Givón 1993). 영어의 관계절은 복합 명사구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절이며, 명사구 수식(modification)이 관계절의 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수식 되어질 때, 명사구 전후 모두 가능하며, 명사구 앞에서 수식되어지는 것은 전치수식(premodification), 명사구 뒤에서 수식되어지는 것을 후치수식(postmodification)이라 한다(Quirk, et al 1985). 영어 후치수식에는 관계절과 동격절(appositive clause)이 있으며, 관계절은 후치수식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 관형절의 경우에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 모두를 허용하는 영어와 달리 오직 전치 수식만 허용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현저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영한번역과정에서 두 언어 상응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관계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에는 아래의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축어적으로(literally) 번역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의 예와 같이 영어와는 다른 관계절 유형이나 (3)의 예와 같이 다른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 (1) a. There you will find **treasure** [**that** _ **will make you a rich man.**] (THE ALCHEMIST p.14)

- b. 자네는 거기서 [Ø=보물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연금술사, p37)

(1a)에서 주어 'treasure'가 관계화 되었고, (1b)에서 역시 주어 '보물이'가 관계화 되어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2)에서는 (1)과 다르게, 다른 관계절 유형으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a. She had been taught that the deck was a book, a book in which the Divine Wisdom had noted down the main **changes** [**that __ take place during our journey through life.**]

(BRIDA, p31)

- b. 그녀는 이 카드는 한 별이 한 권의 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배웠다. [Ø=변화들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인간이 맞닥뜨리게 마련인] 커다란 변화들을 '신성한 지혜'¹⁾가 기록 해둔 책.

(브리다, p65)

(2a)의 영어 원문에서 주어 'changes'가 주어로 관계화 된 것인데, (1b)의 한국어에서도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으로 직역하면 [? Ø=변화들이, 인생이라는 여정동안에 일어나는]로 번역된다. 그래서 (2b)와 같이 ' [Ø=변화들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인간이 맞닥뜨리게 마련인] 커다란 변화들을 '신성한 지혜'가 기록 해둔 책.'라고 번역하여 목적어를 관계화 시켜 번역하였다.

1) 본 논문에서 관계절을 [] 로 표시 하도록 함.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구한 것임.

다음 (3)은 위의 (1), (2)와 달리 한국어 번역시 다른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3) a. The sheep were at the gates of the city, in **a stable [that __ belonged to a friend.]** (THE ALCHEMIST p.15)

b.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 에 있었다.

(연금술사, p39)

(3a)의 영어 원문에서 주어 'stable'가 관계화 된 구문인데, 한국어 번역 시에서도 같은 주어로 관계화하면 '? 양들은 마을 입구, 친구에게 속해있던 외양간에 있었다.'로 번역되어진다. 그래서 (3b)와 같이 관계절이 아닌 다른 구문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영어 관계절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을 알아볼 것이며, 각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한 병렬자료는 Coelho(1990)의 *Brida*와 그 번역본 권미선(2010)과 Coelho(1988)의 *Alchemist*와 그 번역본 최정수(2001)이다. 두권의 책 1페이지부터 각각 60개의 관계절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관계절은 여러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제한절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영어 관계절에 해당하는 한글 번역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비교 논의한다. 그리고 4장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절 습득의 용이성과 관련된 이론으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Keenan과 Comrie(1997)의 명사구 접근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chy)와 영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유생성(animacy)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kegami(1991)의 언어 유형론을 소개 하도록 하겠다.

2.1 Keenan & Comrie의 명사구 접근 위계

Keenan & Comrie (1977)의 명사구 접근 위계(NPAH;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chy)는 언어 유형학(typology)적인 고찰을 통한 일반화이다. 구체적으로 Keenan and Comrie는 다음과 같은 관계사 위치와 관련한 위계를 제안하였다.

(4) 주어(S) > 직접목적어(DO) > 간접목적어(IO) > 사격보어(OBL)
> 속격(GEN)

명사구 접근위계에 따르면 어떤 언어에서 (1)의 위계 중 한 위치에서 관계화(relativization)가 가능하다면 그 상위의 어떤 위치에서도 항상 관계화가 가능하다. 다음 (2)의 예문들은 (1)의 위계에서 주어진 각 유형의 관계절들이다.

- (5) a. 주어(S); Stella is **the person [who _ loves me.]**
 b. 직접 목적어(DO); Stella is **the person [who I love _ .]**
 c. 간접 목적어(IO); Stella is **the person [who I gave _ the present.]**
 d. 사격 보어(OBL); Stella is **the person [who I sent the letter to _ .]**
 e. 속격(GEN); Stella is **the person [whose _ bag was stolen.]**

이 위계는 함의적(implicational)이라 할 수 있는데(Izumi 2003) 그 이유는 한 언어가 가장 유표적인 (5e)에서와 같은 속격의 관계화가 가능하다면 위계에 있어서 그 상위에 위치해 있는 덜 유표적인 다른 모든 형태, (5a), (5b), (5c), (5d) 즉, 주격, 직접 목적격, 간접 목적격, 사격, 그리고 속격의 관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유생성

유생성이란 생명이 있는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d)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생명의 유무, 즉 유생성이 다양한 언어의 문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Comrie 1989: 9장, Croft 1990; Yamamoto 1999; 김은일 2000). 유생성은 언어에 따라 명사 형태론, 동사 형태론 뿐만 아니라 어순(word order)과 주어 선택(subject selection)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은일(1998, 2000)은 유생성이 한국어에서 주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무생물이 타동사 구문의 주어가 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 (6) a. This ticket admits one person.
 b. *이 표는 한 사람만 입장시킨다. (김은일, 2000)

이처럼 타동사 구문에서 영어는 무생물 주어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관계절의 영한번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Ikegami(1991)의 언어 유형론

Ikegami(1991)는 영어와 비교하여 일본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mono*와 *koto*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영어의 thing으로 번역되어 질 수 있는 일본어 단어들이다. *mono*와 *koto*는 각각 물체(object)와 명제(proposition)와 대응한다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7) a. I remember **a party of graduate students [to which I was invited _]**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many years ago.
 b. I remember that I was invited to a party of graduat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many years ago.

(7a)는 관계절로써 a party of graduate students가 관계화 되어 주절의 목적어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반면, (7b)에서는 a party of graduate students는 종속절에 남겨져 문장 전체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7a)의 경

우가 *mono*이고 (7b)가 *koto*유형의 표현이다. (7b)와 같이 *mono*가 부각되지 않고 *koto*의 한 부분, 즉 주절이 아닌 종속절에 남게 되는 *koto*유형의 표현이 일본어 뿐 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 Keenan & Comrie의 명사구 접근 위계와 유생성(*animacy*)의 개념 그리고 Ikegami(1991)의 유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절의 유형과 한국어 영한 번역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 논의해 보겠다.



3. 관계절 유형 및 영한 번역 유형

이 장에서는 관계절의 유형을 분류하고 한국어 번역시 관계화 구문들과 비 관계화 구문들을 살펴볼 것이다.

3.1 영어 관계절 유형

명사구 접근 위계에 따라 분류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영어 관계절은 아래의 (7)과 같이 주어가 관계화 된 경우, (8)과 같이 목적어가 관계화 된 경우, 그리고 (9)와 같이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경우로 분류되어 졌다.

(8) But for the past few days he had spoken to them about only one thing; the girl, the daughter of **a merchant [who _ lived in the village they would reach in about four days.]**
(THE ALCHEMIST, p4)

(9) She may have been young, but she knew **the harm [that loneliness could do _ to the people]**, especially as they get older. (BRIDA, p13)

(10) He had to choose between **something [he had become accustomed to _]** and something he wanted to have.

(THE ALCHEMIST, p27)

(8)의 문장에서는 주어 'merchant'가 관계화 되었고, (9)의 문장에서는 목적어 'the harm'이 관계화 되었고 (10)의 예문에서는 사격보어 'something'이 관계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명사구 접근 위계에 따른 영어 관계절의 빈도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명사구 접근 위계에 따른 영어 관계절의 분류

| S | DO | IO | OBL | GEN | 합계 |
|---------------|---------------|-----------|-------------|-----------|---------------|
| 78 (65.0%) | 37 (31.0%) | 0 (0%) | 5 (4.0%) | 0 (0%) | 120 (100%) |

주어가 관계화 된 경우가 78문장 65.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목적어가 관계화 된 경우가 37문장 31.0%,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경우가 5문장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경우와 속격이 관계화 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번역문의 관계절 유형을 살펴보겠다.

3.2 한국어 번역문의 관계절 유형

영어 관계절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아래의 (11)처럼 관계절 구문뿐만 아니라, 아래 (12)처럼 비관계화 구문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한다.

(11) a. He owned a jacket, **a book [that he could trade __ for another]**, and a flock of sheep. (THE ALCHEMIST, p10)

b. 그에겐 겉옷이 한 벌 있었고, [Ø=책울,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양 떼가 있었다. (연금술사, p30)

(12) a. The next day, he gave his son **a pouch [that __ held three ancient Spanish gold coins.]** (THE ALCHEMIST, p9)

b.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어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세 개가 들어 있었다. (연금술사, p28)

(11a)에서 보면 목적어 'book'이 관계화 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인 (11b)에서도 '책울'이 목적어로 관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2a)의 예문에서는 'pouch'가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12b)의 예문에서 살펴보면 '주머니'는 관계화 되어 지지 않고, 영어의 관계절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스페인의 옛 금화 세 개가 들어 있었다.'라는 또 다른 주절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문의 관계절과 비관계절의 빈도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영어 관계절의 한국어 번역문의 유형

| 관계화 | 비관계화 | 총계 |
|---------------|---------------|---------------|
| 79 (65.8%) | 41 (34.2%) | 120 (100%) |

영어 관계절이 한국어로 번역 되어졌을 때, 관계화 되어 진 경우가 79문장 (65.8%)이고, 관계화 되어 지지 않은 비관계화 문장이 41문장(34.2%) 이었다. 관계화 되어 번역된 경우가 31.6% 더 높게 나타났지만, 비관계화 되어 번역되어진 경우도 34.2%로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3.2.1 관계절로 번역된 경우

총 120개의 문장 중 비관계화 된 41개를 제외하고 남은 관계절로 번역된 79개의 문장들은 주어, 목적어, 사격보어로 관계화 되었는데 그 빈도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관계절로 번역된 영어 관계절의 유형

| S | DO | OBL | 총계 |
|---------------|---------------|-------------|--------------|
| 48 (60.8%) | 29 (36.7%) | 2 (2.5%) | 79 (100%) |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48개(60.8%), 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29개(36.7%), 그리고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2문장(2.5%) 나타났다.

다음은 주어가 관계화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A. 주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영어에서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78개 였고 한국어로 번역 되어졌을 때 도 주어로 번역되어지는 문장이 48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일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번역 되어질 확률이 57.7%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1. 주어가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된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번역 책략인 주어가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된 경우를 보도록 하자.

(13) a. "Take these," said the old man, holding out **a white stone and a black stone [that ___ had been embedded at the center of the breast plate.]** (THE ALCHEMIST, p 30)

b. "자, 이걸 받게나." 노인은 [Ø=보석이, 금으로 된 흉패 한 가운데 박혀있던]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연금술사 p.59)

(13a)에서 주어 'stone'가 관계화 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인 (13b)에서 '보석'이 금으로 된 흉패 한 가운데 박혀있던 것으로 역시 주어로 관계화 되어졌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14) a. It had brought with it the sweat and the dreams of **men [who _ had once left to search for the unknown, and for gold and adventure and for the pyramids.]**

(THE ALCHEMIST, p 28)

b. 이 바람에는 [Ø=사람들이, 미지의 것들과 황금과 모험, 그리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의 꿈과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연금술사 p.56)

(14a)에서 주어 'men'가 관계화 되었고, (15b)에서 '사람들'이 미지의 것들과 황금과 모험, 그리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나는 것이므로, 역시 주어가 관계화 되어 번역되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다.

(15) a. Their lives had a reason, they could understand **everything** [**that — was going on in the universe**] without ever having heard of things like the Tradition of the sun and Tradition of the moon. (BRIDA p.8)

b. 그들의 삶에는 이유가 있었고, 태양 전승이나 달 전승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도 [Ø=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브리다, p.29)

(15a)에서 주어 'everything'가 관계화 되었고, (15b)에서 역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주어가 관계화 되어졌다.

다음의 예문은 위와 동일하게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에서 모두 주어가 관계화 되어 번역 되어 졌으나, 관계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되어진 경우이다.

(16) a. With a **movement** [**that — was too quick for someone his age**, the man covered whatever it was with his cape.

(THE ALCHEMIST, p.20)

b. 노인은 [Ø=몸놀림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쩍쩍 몸놀림으

로 품안의 광채를 가렸다. (연금술사, p46)

(16a)에서 주어 'movement'가 관계화 되었고, (16b)에서 역시 '몸놀림'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고, 잦싼 것이므로 주어로 관계화 되어 졌다. 그러나, 이 문장은 위의 문장들과 달리 (16a)에서 'that was quick for someone his age'가 (16b)에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과 '잦싼'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해석되었다.

다음은 목적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A-2. 목적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영어에서 주어가 관계화 되어졌으나, 한국어 번역 시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들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문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아래의 (17)에서처럼,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번역되면서 없는 사람 주어가 등장하고 목적어가 관계되는 경우와, (18)에서처럼 번역 시 자동사의 주어가 타동사의 목적어로 바뀌면서 목적어 관계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17) a. The owner of the bar approached him, and he pointed to a **drink [that _ had been served at the next table]**.

(THE ALCHEMIST, p.34)

b. 카페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산티아고는 [Ø=**drink**를,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마시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연금술사, p.66)

(17a)에서 주어 'drink'가 관계화 되었으나, (17b)에서 'drink를'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마시고 있는 것을' 가리켰으므로 목적어로 관계화 시켜 번역하였다. 이것은 영문에서는 수동태로 나타났지만, 한국어로 번역 되어지면서 없는 사람 주어가 등장하고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지고,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18) a. He drank a bit from the **wine** [**that _ remained from his dinner of the night before**], and he gathered his jacket closer to his body. (THE ALCHEMIST, p.7)

b. 그는 [Ø=포도주를, 지난 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걸옷을 단단히 여몄다. (연금술사, p26)

(18a)에서는 'wine'이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18b)에서 '(그가) 지난 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목적어로 관계화 시켜 번역하였다.

이것은 영문에서의 자동사의 주어가 번역 되어 지면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바뀌고 목적어 관계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살펴 본 (17)과 (18)의 예와 같이, 핵명사(head noun)가 영문에서는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국문에서는 목적어로서 관계화 되는 문장은 총 120개 중에 오직 4개로 큰 비중을 차지 한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2장에서 소개 했던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사물 주어가 일반적으로 쓰여 지나 한국어에서는 사물주어가 쓰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 사람 주어를 쓰고 명사를 목적어로 관계화 되어 지게 한 점을 찾아 볼 있다. Yamamoto(1999:60)는 생물이 주어/절 주제(clausal topic)로, 무생물은 직접 목적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행위자(agent)는 유생성이 높고 피행위자(patient)는 유생성이 낮은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김은일(1998, 2000)은 유생성이 한국어의 주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생성이 한국어의 주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듯이 관계절의 번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영문에서는 등위 접속사를 두고 두 문장 모두 주어로 관계화 되어졌으나, 한국어 번역문으로 바뀌면서 한 문장은 그대로 주어로 관계화 되고, 다른 한 문장은 목적어로 관계화 된 경우도 있었다.

(19) a. You must be get us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things in **magic [which — are not and — never will be explained.]** (BRIDA, p.26)

b. 마법에는 [Ø=현상들을, 설명할 수도 없고] [Ø=현상들이, 영원히 설명되지 않을] 현상들이 많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
(브리다, p.57)

(19a)에서 'magic'이 등위 접속사 and를 두고 두 문장이 모두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19b)에서는 하나의 핵 명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고'라고 목적어가 관계화 되어 지고, '현상들이' '영원히 설명되지 않을'라고 주어가 관계화 되어졌다.

'설명할 수도 없고'라고 목적어를 관계화 시킨 문장을 보면, 주어가 생략된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문의 주어가 임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일, 정연창(2006)에 따르면 주어 생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모호성(ambiguity)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요소가 생략될 때, 그 요소가 상황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확인하는 데 모호성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일하게 주어가 관계화 된 두 문장이 한국어로 번역 되어 지면서, 다

른 두 가지 번역이 일어날 수 있었다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유형을 보겠다.

A-3. 사격 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영어에서는 주어가 관계화 되었는데, 한국어 번역시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사격보어로 번역되어진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0) a. Meanwhile, 'I want to ask you to do something,' said the wise man, handing the boy **a tea spoon [that ____ held two drops of oil.** (THE ALCHEMIST, p 31)

b. 그런데 그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소.'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Ø= 찻 숟가락에, 기름 두 방울이 담긴] 찻 숟가락을 건넸다네. (연금술사 p.60)

(20a)에서는 'tea spoon'이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20b)에서는 '찻 숟가락'에 기름 두 방울이 담긴 것으로 사격보어가 관계화 되어졌다.

유사한 예문을 살펴보자.

(21) a. She tried to look for the **facts [that __ would explain her interest in magic]** -childhood visions, premonitions, an inner calling-but could find nothing. (BRIDA, p9)

b. 그녀는 [Ø=계기로, 자신이 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어린 시절에 본 환영과 전조, 내면의 부름 등—을 찾으려고 노력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브리다, p31)

(21a)에서 'facts'가 주어로 관계화 되었고, (21b)에서는 '계기'로 '관심을 가
지게 된'것으로 사격보어가 관계화 되었다.

이 절에서는, 영문에서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번역되어지면서, 동일하
게 주어가 관계화 되어 질 수도 있지만 목적어나 사격보어가 관계화 되어
번역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목적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B. 목적어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목적어가 관계화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유형은 두 가지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는 동일하게 목적어가 관계화 되어 번역되는 경우이고 둘
째는 주어가 관계화 되어 번역되는 경우였다.

B-1. 목적어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된 경우

영어에서 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37개였고 한국어로 번역 되어졌을
때도 목적어로 번역되어지는 문장이 22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동일한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번역 되어질 확률이 59.6%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이는 위의 A에서 영어에서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이 한국어 문
장으로 번역시에도 주어가 관계화 된 57.7% 약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2) a. "Would you give up **everything** [**you had learned ___ until then**] - all the possibilities and all the mysteries that the world of magic could offer you-in order to stay with the love of your life?" (BRIDA, p. 7)

b. 자네는 운명의 상대와 함께하기 위해, [Ø=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주고 자네가 정진한] 모든 것, 마법의 세계가 열어 줄 모든 가능성과 신비를 포기할 수 있겠나? (브리다, p29)

(22a)에서 목적어 'everything'가 관계화 되었고, (22b)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주고 자네가 정진한' '모든 것을' 포기 하는 것이므로 역시 목적어 '모든 것'이 관계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a. Wicca said that she didn't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chose to spend their whole life destroying **paths** [**they didn't even want to follow _**], instead of following the one path that would lead them somewhere. (BRIDA, p. 41)

b. 위카는 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어줄 유일한 길을 따르지 않고, [Ø=길들을, 가고 싶지 않은] 길들을 파괴하는데 평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브리다, p.80)

(23a)에서 목적어 'paths'가 관계화 되었고, (23b)에서 역시 '길들'을 가고 싶

지 않은'것이므로 목적어 '길들'이 관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24) a. She kept trying to distract herself with the cards on the table,
finding little **details** [**that she'd never noticed __ before.**]

(BRIDA, p. 39)

b. 차라리 카드나 보자고 테이블로 눈을 돌렸는데, 불현듯 [Ø=세부
들을,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자잘한 세부들이 보였다.

(브리다, p.76)

(24a)에서 목적어 'details'가 관계화 되었고, (24b)에서 '세부들'을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것으로 역시 목적어 '세부들'이 관계화 되었다.

B-2. 주어가 관계화 된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

영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관계 되었으나,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주어로 관계화 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a. The crystal merchant awoke with the day, and felt the same
anxiety [**that he felt __ every morning.**]

(THE ALCHEMIST, p.44)

b. 크리스털 가게의 상인은 잠에서 깬다. 날이 밝아 있었다. [Ø=불
안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은 이 날도 예
외가 아니었다. (연금술사, p.80)

(25a)에서 목적어 'anxiety'가 관계화 되어졌으나, (25b)에서 '불안'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므로 주어로 관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a. She was privileged to be there with **that man** [**whom other people either loved or feared** ____]. (BRIDA, p.13)

b. 그는 [Ø=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외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와 자리를 함께한 것은 특권이나 다름없었다. (브리다, p.37)

(26a)에서 목적어 'man'이 관계화 되었으나, (26b)에서 '사람'이 존경과 경외를 받는 것으로 주어 '사람'이 관계화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25), (26)에서 목적어가 관계된 문장이 주어가 관계된 문장으로 변화되어 번역이 일어난 것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Ikegami(1991)에 의하면 영어를 "Do-language"로 일본어를 "Become-language"로 나누면서 영어는 행위자(agent)로써 행동(what he does)에 중점을 두고 주어를 의무적인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일본어는 행위자보다는 전체적인 상황묘사에 중점을 두면서 만일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행위자를 감추거나 혹은 환경에 동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동일하게 "Become-language"로 분류된다. 따라서 동일한 문장이라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번역할 때 변조가 가능하다. 또한 Talmy(2001)과 이영옥(2004)에 따르면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표현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영어를 명사지향적인 언어 또는 객체지배언어(Object-dominant language)라고도 하며 이에 반해 한국어는 주어의 명사보다는 상황묘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종결어미를 동반하는 서술어로 문장이 종결되는 특성 때문에 행동지배언어(action-dominant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는 이러한 명사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시 한국어에는 그에 일치하는 대응표현을 찾기가 힘들고 따라서 품사 변화 혹은 언어 유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고 하겠다.

C.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 번역의 유형은 두 가지가 나타났다. 첫째는 번역시에도 사격보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였다.

C-1.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문장으로 번역 될 경우

- (27) a. But her mind was miles away, traveling, wandering about in **places [she'd never been to _ before]**. (BRIDA p.39)
- b.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Ø=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을 헤매고 있었다. (브리다, p.77)

(27a)에서 사격보어 'places'가 관계화 되었고, (27b)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므로, 역시 사격보어가 관계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C-2. 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장으로 번역 될 경우

(28) a. He remembered that he had a number of **things** [**he had to take care of** _]. (THE ALCHEMIST, p.15)

b. [Ø=일들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금술사, p.39)

(28a)에서 사격보어 'things'가 관계화 되었고, (28b)에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목적어'가 관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비 관계절로 번역된 경우

총 120개의 문장에서 관계화 된 79개의 문장들을 제외하고 남은 41개의 번역시 비관계화 된 문장들은 독립절, 부사절, 부사, 명사의 형태로 번역되어지거나, 생략 또는 의역되어 나타났다. 그 빈도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4> 비관계절로 번역된 영어 관계절의 유형

| 독립절 | 부사절 | 부사 | 명사 | 생략 및 의역 | 합계 |
|--------------|--------------|-------------|-------------|---------------|--------------|
| 9 (22.2%) | 5 (12.2%) | 3 (7.3%) | 3 (7.3%) | 21 (51.2%) | 41 (100%) |

독립절로 번역되어진 문장이 9개(22.2%), 부사절로 번역되어진 문장이 5개(12.2%), 부사와 명사로 번역되어진 문장이 각각 3개(7.3%)였고, 관계절의 번역이 아예 생략되거나 의역 되어진 문장이 21개(51.2%)였다.

A. 하나의 독립 주절로 번역된 경우

독립절로 해석이 되어진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졌는데, (29)와 (30)에서처럼 관계절이 또 다른 하나의 주절로 번역되어져 두 개의 문장이 되는 경우와 (31)에서처럼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독립절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29) a. The woman inspired a strange respect, different from the **respect [she had felt ___ for the Magus or for the book seller.]** (BRIDA p.7)

b. 신비로운 존경심을 자아내는 여자였다. 마법사나 서점 주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브리다, p.56)

(29a)에서 'respect'가 목적어로 관계화 되어졌으나, (29b)에서는 관계화 되지 않고 '마법사나 서점 주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또 다른 하

나의 주절로 번역되어져 나타났다.

유사한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다.

(30) a. The next day, he gave his son **a pouch [that _ held three ancient Spanish gold coin.]** (THE ALCHEMIST, p.9)

b.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어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세 개가 들어 있었다. (연금술사, p.28)

(30a)에서는 'pouch'가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31b)에서는 '스페인의 옛 금화 세 개가 들어 있었다.'라는 또 다른 주절로 번역 되었다.

아래의 예문은 영어에서의 관계절이 한국어 번역시 관계화 되지 않 독립절로 번역되어지는데,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독립절로 존재하는 경이다.

(31) a. **People [who _ had never experienced such things]** would feel that life had cheated them. (BRIDA, p.65)

b. 그들은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그들은 삶에 기만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브리다, p.119)

(31a)에서는 'people'이 주어로 관계화 되어졌으나, (31b)에서는 관계화 되지 않고 동일한 문장 안에서 '그들은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라는 또 다른 독립절로 번역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들 역시 한국어 번역시 독립절로 나타난 문장들인데,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절 특징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 (32) a. I know **things** [**I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__], and I don't want to do so. (THE ALCHEMIST, p.58)
- b.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말일세. (연금술사, p.99)

(32a)에서는 'things'가 목적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한국어 번역문인 (32b)에서 보면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이라고 목적어절로 번역되었다. 영어에서는 things가 초점화 되었으나 한국어에서는 비초점화 되어 졌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 (33) a. That morning he had known **everything** [**that** __ **was going to happen to him**] as he walked through the familiar fields.
(THE ALCHEMIST, p.38)
- b. 오늘 하루, 자신이 돌아다닐 초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흰하게 꿰고 있었다. (연금술사, p.80)

마찬가지로 (33a)에서 'everything'가 주어로 관계되었으나, 한국어 번역문인 (33b)에서는 '자신이 돌아다닐 초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고 목적어절로 번역되면서 영어에서 초점화되었던 everything이 비초점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2장에서 소개한 Ikegami(1991)의 유형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어는 필요한 정보를 부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목적어절로 나타내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관계절이 부사절로 번역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B. 부사절로 번역되어진 경우

영어의 관계절이 한국어 번역시 관계화 되지 않고 부사절로 번역되어
는 경우는 이유, 목적, 양태의 부사절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이유의 부사절로 번역되어진 경우를 살펴보자.

(34) a. The boy mumbled **an answer [that ____ allowed him to
avoid responding to her question.]** (THE ALCHEMIST, p6)

b.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금술사, p.23)

(34a)에서 주어 'answer'가 관계화 되어졌으나 (34b)에선 영어의 관계절이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라는 '이유'의 부사절
로 번역되었다.

둘째, 목적의 부사절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35) a. He had come to the town only to find **a woman [who ____
could interpret his dream.]** (THE ALCHEMIST, p.27)

b. 그는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노파를 찾아갔을 뿐 이었다.
(연금술사, p.54)

(35a)에서 주어 'woman'가 관계화 되어졌으나 (35b)에서 영어의 관계절이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라는 ‘목적’의 부사절로 해석이 되어졌다.

셋째, 양태의 부사절로 된 경우를 살펴보자.

- (36) a. Some men were smoking from a gigantic pipe [**that they passed _ from one to the other.**] (THE ALCHEMIST, p.33)
b.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담배 파이프 하나를 입에서 입으로 돌려가며 나눠 피우고 있었다. (연금술사, p.65)

(36a)에서 목적어 ‘gigantic pipe’가 관계화 되어졌으나, (36b)에서 영어의 관계절이 ‘입에서 입으로 돌려가며’라는 ‘양태’의 부사절로 해석 되어졌다.

관계절이 이유, 목적, 양태의 다양한 부사절로 번역되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부사로 번역되어진 경우를 살펴보겠다.

C. 부사로 번역되어진 경우

- (37) a. She gave him the same **answer [she had given _ before.**]
(BRIDA, p.5)
b. 그녀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브리다, p.26)

(37a)에서 목적어 ‘answer’이 관계화 되었으나, 한국어로 번역인 (37b)에서는 관계화 되어 지지 않고, ‘아까와’라는 부사로 번역되어졌다.

다음으로는 명사로 번역되어진 유형을 살펴보자.

D. 명사로 번역되어진 경우

명사로 번역되어진 유형은 속격과 공동격 두 개로 나누어졌다.

첫째, 소격으로 번역된 경우를 보자.

(38) a. The sheep were at the gates of the city, in a **stable** [**that** __
belonged to a friend.] (THE ALCHEMIST, p.15)

b.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에 있었다.

(연금술사, p39)

(38a)에서는 'stable'이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38b)에서는 '친구의'라는 속격으로 번역되었다.

둘째, 공동격으로 번역된 경우를 보자.

(39) a. They have blond hair, or dark skin, but basically the same as
people [**who** __ **live right there.**] (THE ALCHEMIST, p.9)

b.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이란다. (연금술사, p28)

(39a)에서 'people'이 주어로 관계화 되었으나, (39b)에서는 관계화 되지 않고 '우리와'라는 공동격으로 번역이 되었다.

영어의 관계절이 한국어 번역시 속격과 공동격 명사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생략 및 의역이 되어진 경우를 살펴보겠다.

E. 생략 및 의역 되어진 경우

(40) a. There, in the sand of the plaza of that small city, the boy read the names of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the name of **the seminary [he had attended __.]**

(THE ALCHEMIST, p.21)

b. 그것은 놀랍게도 산티아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난들, **신학교**에서 보낸 추운 밤들서건 그가 살아온 날들이 거기 있었다. (연금술사, p.46)

(40a)에 목적격 'seminary'가 관계화 되었는데 (40b)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어지고 해석이 되어 지지 않았다.

한국어 번역과정에 관계절이 생략되어지는 경우가 다소 발견 되어졌는데, 그러한 이유는 관계절이 없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차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어는 상황 맥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앞에 언급 되어지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비 관계절로 번역되는 경우를 5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4. 결론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종위구조가 발달하여 전치수식과 후치수식이 모두 가능한 언어인 반면, 한국어는 종위 구조보다 병렬구조가 발달해서 전치수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관계절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영한 병렬 언어 자료 Coelho(1990)의 *Brida*와 그 번역본 권미선(2010)과 Coelho(1988)의 *Alchemist*와 그 번역본 최정수(2001)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의 관계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졌을 때 관계절로 번역이 되어 지는 비율이 65.83%이고 그렇지 아니한 비율이 34.17%였다. 관계절로 번역된 영어 관계절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가 주어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둘째가 목적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번역 그리고 셋째가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을 번역이 그것이다.

첫째 주어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경우 주어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목적어가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영어문장에서 수동태가 번역되어지면서 능동태로 바뀌고 목적어가 관계화 되거나, 영어문장에서 자동사의 주어 관계화 번역되어지면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바뀌면서 목적어가 관계화된 경우였다. 그리고, 사격보어가 관계화된 영어 관계절이 있었다.

둘째 목적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경우는 목적어가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되는 경우와 주어 관계화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어 관계화 되는 경우는 Ikegami(1991)의 행위자 부각과 연관하여 나타났다.

셋째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영어 관계절의 경우 사격보어가 관계화 된 절로 번역되는 경우와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가 있었다.

비관계절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는 6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독립절이나 부사절로 해석 되어지는 경우, 부사나 명사로 해석되어지는 경우 또는 아예 생략 또는 의역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습득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른 수식 구조를 가진 관계절의 번역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 되고 관계절의 원활한 번역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병렬 언어 자료

- 권미선 (역). 2010 「브리다」. 파주: 문학동네.
최정수 (역). 2001 「연금술사」. 파주: 문학동네.
Coelho, P. 1988. *The Alchemis*. New York: Harper Fiction.
Coelho, P. 1990. *Brida*. New York: Harper Fiction.

참고 문헌

- 김은일. 1998.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구조에 나타난 유생성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64.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김은일, 정연창. 2006. 한국어 '-게 되다' 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 문법적 분석. 「새한영어영문학」 48(1), 159~180.
이영옥. 2004.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번역학 연구」 5(1), 91~111.
Bassanet, S. 1991.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Comrie, B. 1989. *Language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 영문법 I & II」. 서울: 박이정.)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Y. Ikegami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Culture*, 258-326. Amsterdam: John Benjamins.
- Izumi, S. 2003. Processing Difficulty i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Relative Clauses by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53(2), 285-323.
- Keenan, E. & Comrie, B. 199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Talmy, L. 2001.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 MIT Press.
- Talmy, L. 2001.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IT press.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